

# 한국 교회학교 교사의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만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 Based on the Survey on the Teachers in Church Schools in Korea

Man-Oh Han

Baekseok University,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현실과 실태들을 조사하여 미래 교회학교와 교사들에게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미래 교회학교와 교사들에게 필요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의 기독교 인구의 변동의 요인들, 기독교 인구의 감소 요인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수의 감소 요인들, 현재 교회학교 교사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사들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런 교회학교 현실과 상황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634명의 학교교회 교사들에게 12가지의 교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하였고,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대안들을 교사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사, 교사의 조건, 교사의 실수, 교사의 리더십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future church schools and the teachers after examining the reality and the situation of the teachers in church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examined the factors of the changes in Christian population in Korea, the factors of reduced number of Christian population and the factors of the reduced number of students in church schools. It also conducted the survey on the teachers in church schools to find the actual problems and situation of them. Based on the result and analysis of the survey, the study will suggest the alternative plans for improvement. The study asked 12 questions of 534 teachers to examine the real situations of the teachers in church schools in Korea and based on the analysis and result of it, the study will suggest a couple of alternatives to the teachers.

**Key Words** : Church school, sunday school teacher, Conditions of teacher, Mistake of teachers, Leadership of teacher

### 1. 서론

현재 한국교회와 교회학교 현실과 상황이 심각한 상

태이다. 한국교회 교인과 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도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지금 한국교회와 교회학교는 위기의 상황

\*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  
Received 10 October 2015, Revised 18 Nov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Manoh Han  
(Baekseok University,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Email: hanmanoh@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찾고, 이와 같은 현실과 상황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역할과 사명, 리더십, 인격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였고,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634명의 교사들에게 12가지의 교사의 아픔, 현실적인 문제점, 교사들의 조건과 리더십, 교사의 사명과 꿈, 교사의 준비 과정(시간), 그리고 교사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교사들에게 하였고, 설문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새로운 대안들을 한국교회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 2. 교회학교의 미래와 문제점

최윤식은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985년에는 16%로 성장하였고, 1995년에는 19.7%로 성장했다가 2005년에는 18.7%로 감소했다고 말했다[1]. 2005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620-720만 명에 불과하다[2].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10년마다 1%씩 인구가 줄어든다고 가정하여 2060년대 기독교 인구는 550만대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3], 이단들의 기세가 더욱 심해진다는 가정을 한다면 순수한 기독교 인구는 300만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4]. 그의 책에서는 기독교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강조하였다[5]. 그는 이와 같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교회학교 학생수도 2045년이 되면 대략 30-4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6]. 또한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7]. 그러나 198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였다[8]. 그 이유는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과 인구의 감소이었다[9].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기독교인구와 교회학교 학생수의 감소는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 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교회학교와 교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교회학교와 교사들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한국교회와 교회학교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실제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회학교 학생수의 감소에 대비한 교회학교와 교사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 수집

본 조사는 전국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을 시행하였다.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1,000부를 배포하여 이중 650부(회수율 65%)가 회수되었으면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634부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 3.2 응답자의 속성

본 조사에 관한 응답자의 속성으로는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교사경력, 세례는 언제인가이고,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 4. 연구결과 및 분석

### 4.1 교회학교 교사의 교사직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연구결과(분석)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직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위가 ‘사명감을 갖고 매우 기쁘게’(59%), 2위가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해야 하니깐’(19%), 3위가 ‘목회자나 부장집사의 권유로’(9%)이었고, 기타(6.3%), ‘지금 그만 하고 싶다’(4%), ‘아무 생각 없이’(2%) 순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10명 중에 6명의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직에 사명감을 갖고 매우 기쁘게 봉사하는 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대로 10명 중에 4명은 교회학교 교사직에 사명도 없이 마음가짐으로 교회학교 교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10].

- 첫째, 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받은 사람이다.
- 둘째, 교사는 선한 일을 위해 사명 받은 사람이다.
- 셋째, 교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사명 받은 사람이다.
- 넷째, 교사는 목자(shepherd)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 다섯째, 교사는 아이들의 롤모델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Table 1〉 Properties of respondents

division	item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83	34.6
	female	451	65.4
	Subtotal	634	100
Ages	Less than 20	57	0.9
	20 years old	120	19
	30 years old	152	24
	40 years old	222	35
	more than 50 years old	133	21.1
	Subtotal	634	1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18	2.9
	high school graduation	145	22.9
	university graduation	258	40.7
	Graduate school	57	9.1
	High School Student	2	0.5
	College student	143	23.9
	Subtotal	623	100
Job	Housewife	129	20.3
	student	190	30.0
	Professions	128	20.2
	Office	79	12.5
	Trades	29	4.6
	Etc	30	4.7
	Subtotal	585	92.3
Career	Less than 1 year	85	13.4
	1-3 years	163	25.7
	4-5 years	95	15.0
	6-7 years	57	9.0
	more than 7 years	232	36.7
	Subtotal	632	99.8
Baptism career	Less than 1 year	4	0.6
	1-3 years ago	32	5.0
	4-5 years ago	39	6.2
	6-7 years ago	38	6.0
	more than 8 years	511	80.6
	Subtotal	624	98.4

#### 4.2 교회학교 교사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 연구결과(분석)

‘지금의 교회학교 교사직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위가 ‘만족한다’(47.9%), 2위가 ‘보통이다’(33.1%), 3위가 ‘매우 만족한다’(14.2%)이었고, ‘불만족 한다’(2.4%), ‘매우 불만족한다’(1.4%) 순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10명 중 6명 이상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사직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직에 불만족한 교사의 수는 거의 없었다(3.8%). 하지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수가 33.1%가 되는 것으로 보아 10명 중 3명 정도는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은 상태로 교사직을 하고 있다는 것

을 말해 준다.

#### 4.3 교회학교 교사의 자존감에 대한 연구결과

##### (분석)

‘교회학교 교사로서 자존감이 어떤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위가 ‘자존감이 높다’(43.5%), 2위가 ‘보통이다’(41.5%), 3위가 ‘자존감이 매우 높다’(8.2)로 응답하였고, ‘자존감이 낮다’(5.4%), ‘자존감이 매우 낮다’(0.5%) 순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교회학교 교사로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2명 중에 1명이고, 교회학교 교사 10명 중 4명은 자존감이 보통이다.

#### 4.4 교회학교 교사의 보람에 대한 연구결과

##### (분석)

‘교회학교 교사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79.8%가 ‘내가 가르친 학생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6.9%), ‘목회자나 부장집사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3.5%), ‘기타’(3.3%), ‘학부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교회학교 교사의 10명 중 8명은 교사로서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신앙과 행동의 변화, 학부모와 목회자(부장집사 포함)으로부터의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에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 4.5 교회학교 교사직을 그만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연구결과(분석)

‘교회학교 교사직을 언제 가장 그만 두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9.2%의 교회학교 교사가 ‘내가 가르친 학생의 변화가 없을 때’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교회에서 교회학교나 교사에 대한 무관심, 지원이 없을 때’(22.5%), ‘기타’(17.3%), ‘내가 가르치는 반이 부흥되지 않을 때’(15.8%), ‘학생들이 예의가 없을 때’(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교회학교 교사의 45%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변화가 없거나 자신이 가르치는 반이 성장이 되지 않을 때에 가장 교사직을 괴로워하고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높다고 말했다. 이것은 10명 중 명에 가까운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 10명 중 2명의 교사는 교회(목회자 포함)에서 교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소명감이 분명한 교사는 쉽게 교사직을 포기하지 않는다[11].

#### 4.6 교회학교 교사로서 가르칠 준비 시간에 대한 연구결과(분석)

‘교회학교 교사로서 가르칠 준비를 한 주 동안 얼마나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5.3%의 교사들이 한 주 동안 ‘30분 이내’로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 순으로는 ‘1시간 이내’(27.7%), ‘1시간 이상’(20.2%), ‘10분 이내’(10.7%), ‘준비하지 않는다’(5.9%)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1시간 이상 가르칠 준비를 많이 하는 교사는 10명 중 2명이고, 나머지 8명의 교사는 30분 이내 준비하거나 준비도 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7 교회학교 교사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연구결과(분석)

‘교회학교 교사로서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2%의 교사들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소통의 리더십’(35.3%), ‘인격의 리더십’(11.4%), ‘영적리더십’(7.4%), ‘권위의 리더십’(2.5%)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의 교사들의 리더십은 권위의 리더십 보다는 섬김, 소통, 인격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꼭 필요한 영적리더십이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교사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의 조건, 교사의 리더십, 영적 리더 등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위대한 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준비하고 배워야 한다. 위대한 교사는 좋은 리더의 조건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교사는 세상 리더와 다른 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12].

#### 4.8 교회학교 교사의 실수에 대한 연구결과(분석)

‘교회학교 교사로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0.2%의 교사들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함’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학생을 판단함’(22.8%), ‘언행불일치’(18.9%),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16%), ‘언어 습관(관리)’(8.4%)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교회학교 교사로서 자주 실수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자기관리(언행불일치, 감정통제, 언어관리)에 관련 된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교사로서 자기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실수를 하는 교사가 2명 중에 1명 정도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 5가지는 아래와 같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13].

첫째, 비본질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자기 자랑하느라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앞에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뒤에서도 아이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통(通)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말실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언어습관을 가져라[3,4,5,6,7,8,9,10].

#### 4.9 교회학교 교사의 조건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

'좋은 교회학교 교사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교사들의 절반 이상(57%)이 '교사의 사명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인격(33.4%)'이었고, 나머지 조건들에 응답한 교사들의 수가 매우 적었다.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4.9%), '교사의 자존감'(2%), '교사의 전도능력'(0.9%) 순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좋은 교사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능력, 전도능력, 자존감이 중요한 교사의 조건이 아니고, 사명감과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학교 교사의 조건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교사직을 본업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갖춘 사람이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사의 7가지 조건을 제안한다[14].

첫째, 냄비형 교사가 아닌 가마솥형 교사이다.

둘째,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배우는 교사이다.

셋째, 시키는 교사가 아닌 함께하는 교사이다.

넷째, 손을 잡아 주는 교사가 아닌 등을 대주는 교사이다.

다섯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본을 보여 주는 교사이다.

여섯째, 지식을 주는 교사가 아닌 사랑을 주는 교사이다.

일곱째, 아이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사가 아닌 나부터 변화하는 교사이다.

#### 4.10 교회학교 교사가 아파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결과(분석)

'교회학교 교사가 아파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음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9.2%의 교사들은 '관계(학생들, 동료 교사들,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의 변화나 사역의 열매(부흥)이 없을 때'(28.2%), '과중한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 탈진 했을 때'(23.6%),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 할 때'(7.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장 아파하는 이유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교사직을 떠나고 싶고, 탈진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11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분석)

'교사로서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6.7%의 교사들이 '교사의 사명감'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의 비전과 열정'(28.5%), '담임목사의 관심과 교회 지원'(9.8%), '교사의 인격'(7%), '교사의 전도'(4.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즉 이들은 자신의 사명감, 자신의 비전과 열정이 더 중요하지, 담임목회자의 관심과 교회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12 교회학교 교사의 존경심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3%의 교사들은 ‘보통이다’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존경받고 있다’(26.5%), ‘존경받지 못한다’(7%), ‘매우 존경받고 있다’(1.9%), ‘전혀 존경받지 못한다’(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교회학교 교사의 대부분은 자신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로 생각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10명 중 1명은 학생들로부터 자신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사의 자존감 회복이 아이들의 자존감보다 먼저이다[15]. 자존감이 높은 교사의 특징 9가지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사명감이 강하다, 존경을 받는다, 자신감이 있다, 열매가 있다, 칭찬을 잘한다, 불평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16].

### 5. 결론

본 연구는 634명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12가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그 결과들을 알아보고 분석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대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분석한 것은 종합해 보면, 교회학교 교사직의 만족도 분석에서 만족하는 교사는 62.1%이고, 교사의 자존감 분석에서 자존감이 높은 교사는 51.7%이고, 교사로서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가르치는 학생의 신앙이 성장할 때(79.8%)이고, 교사직을 가장 많이 그만 두고 싶을 때는 가르치는 학생의 변화가 없을 때(29.2%)이고, 교사의 가르칠 준비시간은 30분 이내(35.3%)가 가장 많았고,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 중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43.2%)이 가장 높았고, 교사의 리더십 스타일 중에서 섬기는 리더십 스타일(42%)이 가장 많았고, 교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30.2%)이었고, 교사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사의 인격(33.4%)이었고, 교사가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관계가 좋지 못할 때(39.2%)이었고, 교회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의 비전과 열정이 가장 필요하다(28.5)고 했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63%은

학생들로부터 보통수준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겨우 28.4%의 교사들만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학교의 교사의 현주소이고, 문제점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현주소와 문제점, 현실 등을 설문지 분석과 결과를 통해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분석과 결과를 통해 이렇게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위한 미래의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학교 학생들(초중고)과 청년(청년과 대학생,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요구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17].

둘째, 교회학교 학생들(초중고)과 청년(청년과 대학생, 젊은 세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교회 안의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18].

셋째, 한국교회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사들 자신이 먼저 영광스러운 교사의 직분에 사명감과 보람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넷째,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교회학교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미래의 교회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교회 담임목회자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담임목회자가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교회재원을 더 많이 지원하고 투자한다면, 미래의 교회학교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교회학교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다섯째, 한국교회에 대한 안티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이런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20-30대의 교회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안티 기독교와 적대적 언론이 더 많아지고 있다[19].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목회자의 자질과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면,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씩 좋아 지게 될 것이고, 동시에 교회학교도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교회학교의 성장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

## REFERENCES

- [1] Yunsik, Choi, "2020 2040 Korea church future map" 41, Lifebook, 2013.
- [2] Yunsik, Choi, "2020 2040 Korea church future map" 30, Lifebook, 2013.
- [3] Yunsik, Choi, "2020 2040 Korea church future map" 39, Lifebook, 2013.
- [4] Yunsik, Choi, "2020 2040 Korea church future map" 41, Lifebook, 2013.
- [5] Yunsik, Choi, "2020 2040 Korea church future map" 42, Lifebook, 2013.
- [6] Yunsik, Choi, "2020 2040 Korea church future map" 42, Lifebook, 2013.
- [7] Yunsik, Choi, "2020 2040 Korea church future map" 42, Lifebook, 2013.
- [8] Yunsik, Choi, "2020 2040 Korea church future map" 42, Lifebook, 2013.
- [9] Yunsik, Choi, "2020 2040 Korea church future map" 42, Lifebook, 2013.
- [10] Manoh Han, "God's message to teachers pained" 97, Daeseo, 2012.
- [11] Manoh Han, "God's message to teachers pained" 93, Daeseo, 2012.
- [12] Manoh Han, "God's message to teachers pained" 180, Daeseo, 2012.
- [13] Manoh Han, "God's message to teachers pained" 210-211, Daeseo, 2012.
- [14] Manoh Han, "God's message to teachers pained" 73, Daeseo, 2012.
- [15] Manoh Han, "God's message to teachers pained" 36, Daeseo, 2012.
- [16] Manoh Han, "God's message to teachers pained" 40-44, Daeseo, 2012.
- [17] Byeonggeum, Jeon "Korea Christian Analysis

Report"466, Book Publishing URD, 2013.

[18] Byeonggeum, Jeon "Korea Christian Analysis Report"467, Book Publishing URD, 2013.

[19] Byeonggeum, Jeon "Korea Christian Analysis Report"430-434, Book Publishing URD, 2013.

## 한 만 오(Han, Man Oh)



- 2001년 2월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석사)
- 2007년 5월 : 미국 Liberty University(석사, 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리더십, 교수학습법
- E-Mail : hanmanoh@bu.ac.kr